

모두가 궁금한 2015 한국번개건축 뒷이야기

올여름, 가장 Hot! 했던 '2015 한국번개건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춘천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별, 나이, 직업을 불문한 봉사자들이 오직 한국해비타트를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숙식까지 함께하며 유쾌! 상쾌! 통쾌! 에너지를 발휘한 이들. 아직도 열기가 채 식지 않은 2015 한국번개건축의 후기를 나누며 이제는 뜨거운 안녕을 고하려 한다.



봉사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착한 참여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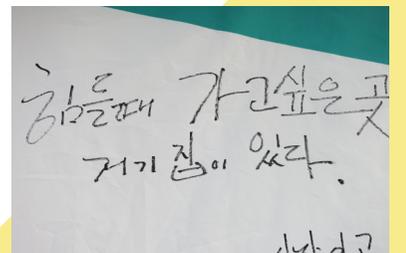
2015 한국번개건축에 착한 경쟁이 펼쳐졌다. 두 차례에 걸친 참가자 모집에서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넘어서는 열띤 참여가 있었던 것. 예년과 달리 2015 한국번개건축은 춘천 현장 단 한 곳에서만 진행된 터라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휴가를 모두 봉사 계획으로 채웠다는 직장인, 자녀에게 다른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아버지,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려는 교수님까지. 참가한 이유도 배경도 모두 달라 서로 알아가는 재미가 더했다는 후문이다.

서투리도 괜찮아, 격려와 배려의 집짓기

2015 한국번개건축 현장에는 3년 이상 된 봉사자와 처음 온 초보 봉사자가 공존했다. 130여 명의 봉사자는 경험과 연령대에 따라 13개 조로 적절히 나뉘었다. 어설플 망치질에 손가락 마디마디 명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헌신한 이들이 있어 3박 4일 동안의 뜨거운 땀방울이 더욱 의미 있지 않았을까? 생수병을 품에 가득 안고 목마른 조원들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있던 2015 한국번개건축 현장. 그곳은 서로의 실수를 보듬고 다독이는 배려가 넘치는 자리였다.

봉사는 뜨겁게 지휘는 차갑게, 전문빌더 총출동

일반봉사자와 더불어 한국해비타트는 봉사자 관리를 맡는 건축크루리더, 현장 운영과 행정을 돕는 행정크루리더를 선발했다. 해비타트 건축스태프, 목조건축학교 수료생, 대학생 크루리더 삼박자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춘천 현장을 총괄하는 건축팀장은 많은 수의 봉사자가 투입되는 만큼 건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눈으로 현장을 지휘했다. 더불어 봉사자들에게 정확한 시공 방법을 지도하고 부족한 점은 도와주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나에게 집이란,
사랑을 담은
그릇이다



건축 현장의 오아시스, 물풍선 던지기

빌더들을 위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현장 이벤트가 있었으니, 바로 물풍선 던지기! 양동이에 물풍선을 던져 골인하면 물이 차오르는 게임이다. 물풍선 2개의 값으로 단돈 1,000원을 내면 우간다 어린이를 위한 Wash Project(식수위생환경 개선사업)도 후원하고 더위도 해소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우간다 어린이를 위한 마음이 담긴 색색의 물풍선들이 현장을 빛냈다.



내 손에 담긴 해비타트, 번개장터

타이백으로 만든 지갑, 카드형 USB, 텀블러를 비롯해 볼트와 너트, 망치를 상징하는 액세서리까지 해비타트의 의미를 담은 물건이 가득했던 번개장터. 조원들에게 기념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아이스 텀블러를 10개나 산 통 큰 봉사자도, 함께 오지 못한 친구를 위해 아이템을 구매한 섬세한 봉사자도 함께한 자리였다. 어느 날 문득, 기념품이 눈에 띄는 날이면 구슬땀 흘린 이 여름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뜨겁고 아름다웠던 마지막 밤, 특 투게더

2015 한국번개건축의 봉사자들은 함께 모였다 하면 언제 힘들었느냐는 듯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특히 마지막 밤에 진행된 토크콘서트 '특 투게더'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을 정도. "개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를 토로한 사연부터 강아지와 함께 잠들 때, 샤워하고 나와 혼자 춤출 때 등 집에 있으며 느끼는 소중한 행복까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디밴드 모던다락방의 공연은 세대를 잇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브라운관의 주인공이 되다, 언론 인터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2015 한국번개건축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도 높았다. 열심히 못을 박다가도 인터뷰 요청에 조용히 망치를 내려놓고는 카메라 앞에 서서 활짝 미소 지어준 봉사자들 덕에 번개건축만의 고되고도 벽찬 보람을 담을 수 있었다. KBSITV 9시 뉴스는 '소중한 휴가와 방학도 반납한 채 집이 없는 이웃을 위해 희망의 집을 지어주는 봉사자들'이란 제목으로 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한국번개건축 색(色)을 입다, 디자인 재능기부

2015 한국번개건축의 슬로건은 "WE ARE HABITAT." 포스터, 현수막 등의 온-오프라인 콘텐츠부터 티셔츠, 에코백, 손수건 등이 담긴 봉사자 키트까지, 디자인 재능기부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의 미모 4인방 효빈, 은비, 윤지, 혜윤이 모여 프로그램 전반에 색을 입혔다. "통일된 색상을 통해 각기 다른 콘텐츠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임을 보여주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뿌듯하다"고 전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